

##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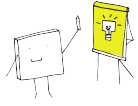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1. 『고양이 엄마』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고양이 엄마』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세상 모든 엄마들을 위한 가슴 따뜻한 동화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얼룩소가 빨리 나오라는 듯 또 한 번 손짓했다.  
 셋이 뛰어나가 얼룩소를 에워쌌다.  
 랑이가 얼룩소 불에 자기 불을 비볐다.  
 아빠랑 솔이도 얼룩소를 어루만졌다.  
 셋이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룩소도 덩달아 신이 나 여기저기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여일당 마당을 가득 채웠다.

- 1)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2) 뒤표지에 나온 랑이의 가족을 모두 적어보세요.
- 3) 고양이의 이름은 왜 ‘얼룩소’일까요? 예상해서 써 보세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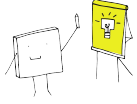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 『고양이 엄마』를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봅시다.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32쪽	랑이의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으로 가서 깜짝 놀랐다. 생일에 엄마를 잃어버린 랑이의 슬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다.

2. 책에 나오는 각 인물들은 ‘고양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물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등장 인물	고양이에 대한 생각
랑이	→ 고양이를 싫어했지만 □□무늬 고양이를 구해주면서 고양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고양이를 □□라고 생각하며 더욱 애정을 느낀다.
진주	→ 길고양이에게 □□을 쫓개 음식을 사 줄 만큼 고양이를 좋아한다. 집에서 키우는 것을 반대해서 고양이를 데려가지는 못한다.
랑이 엄마	→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고, 길고양이를 위해 계속 □□을 하고 있었다.
아빠	→ 고양이 키우는 것을 반대하지만 얼룩소(고양이)가 아내의 추억이 담긴 □□을 가져오자, 그 고양이가 □□라고 했던 아이들의 말을 믿고 좋아하게 된다.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어휘력 기르기

\* 『고양이 엄마』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으 저 소리 정말 싫어!”

“왜? 길고양이 울음소리인데?”

“울음소리가 꼭 아기 울음소리 같잖아. 밤에 들으면 더 무섭고 섬뜩해. 으, 듣기 싫어!”

랑이가 몹서리를 치듯 부르르 떨며 말했다. 진주 얼굴에 아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난 고양이 엄청 좋아하는데…….”

(나)난데없는 경적 소리에 급히 몸을 돌리니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 중이었다.

“아휴! 야! 고양이, 저리 가!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야…….”

양갈진 여자 목소리가 골목길을 흔들었다. 새끼 고양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평온하게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랑이는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외할아버지 고집은 ㉠ 고집이니까 엄마가 포기했겠죠?”

솔이가 ㉡ 고집이란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참치 캔 딱 하나 남았는데 일단 그거 주자. 학교 마치고 내가 고양이 사료 사 올게.”

“저기 벌써 왔네. ㉢ 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푸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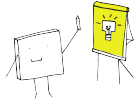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1. (가)와 (나)의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 뜻을 아래에서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 ① 자기 불쑥 나타나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 ②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 ③ 몹시 싫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리는 일.
- ④ 매우 모질고 날카롭다.

2. (다)의 빈칸 ㉠, ㉡에 들어갈 말의 뜻을 참고하여, 각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동물을 쓰세요.

㉠ 몹시 센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

㉡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슬픔을 다독이는 방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럼 우리 엄마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이야?”

몸을 기울여 랑이도 물었다.

“뭘? 정말? 누나, 우리 엄마 살아 있어?”

솔이가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진짜로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졌던 원자가 모여서 다른 존재가 될런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저렇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나) 열룩소가 엄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열었는지 창문도 열린 채였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마당을 내다보며 흐뭇하게 웃기까지 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둘은 기묘한 풍경에 넋을 잃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누나, 열룩소…… 꼭 우리 엄마 같지 않아?”

마침내 솔이가 입을 열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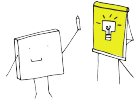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이모가 그랬잖아. 어딘가 살아 있을지 모른다고. 계속 사랑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1. (가)에서 이모가 누군가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가)에서 나온 ‘다른 존재’를 솔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나)에서 찾아 써 주세요.
3. 슬픔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법인지 소개해 주세요.
4. 소중한 사람을 잃은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을까요? 내가 진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랑이의 문자에 답장을 보내 주세요.

<랑이의 문자>

진주야.....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어. 생일 파티는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다른 애들한테는 네가 알려줘.

<진주의 답장>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집은 어떤 곳일까?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여일당? 아빠, 여일당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문패를 들여다보며 랑이가 물었다.

“여일당은 한결같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이랑 꼭 닮은 이 한옥이 늘 한결같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단다.”

“멋진 이름이에요. 여일당.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라도 반긴다는 듯 여일당 대문은 높이가 낮았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작고 아담한 마당이 있었다.

여일당에 이사 온 첫날부터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쓸고 닦고, 정리하느라 바빴다. 그러다 쉬고 싶으면 거실 창문 옆, 엄마 의자에 앉았다. 시원한 파란색 의자는 엄마의 지정석으로 통했다. 차를 마시고 뜨개질을 하고, 책을 읽는 자리.

(나) “누나, 왜 멍하니 서 있어?”

‘여일당’ 문패를 바라보고 선 랑이에게 솔이가 물었다.

“어? 솔이 왔구나? 그냥……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서…….”

“나도 생각나. 여일당이란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엄마도 그랬는데…….”

‘여일당, 한결같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여일당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도, 엄마가 심어 놓은 꽃들도, 가지런히 벗어 놓은 신발마저도. 모든 것이 한결같았다. 엄마만 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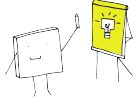
1. 랑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가요?

2. (가)와 (나)는 모두 집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가)와 (나)에 나타난 랑이의 기분은 확연히 다릅니다. 두 장면에서 랑이의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해서 써 보세요.

(가)

(나)

3.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름을 지어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정말 엄마일까?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수면 등만 빼고 불을 모조리 껐다. 그러곤 솔이 옆에 누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했다.

“그날은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모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략)”

“어?”

솔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룩소, 너 언제 온 거야?”

어느새 둘 사이에 얼룩소가 앞발을 들어 올려 솔이 머리를 토닥였다.

(나) ‘사랑하는 우리 딸 랑이에게’

랑이야!

우리 딸 열두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처음 우리 랑이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툭툭툭툭한 눈을 뜨고 엄마를 쳐다봤을 때 말이야, 엄마는 참 행운이구나 싶었어. 이렇게 귀한 아기가 엄마를 찾아왔으니까.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엄마가 평생 랑이 아끼고 사랑해 줄게. 잊지 마! 우리 언젠가 어디서나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해!

‘사랑하는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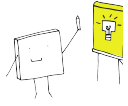
1. (가)에서 솔이가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책에서 얼룩소를 엄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얼룩소가 랑이의 엄마라고 생각했나요?

3. 얼룩소는 엄마가 랑이에게 주지 못한 생일 카드를 전달합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고, 랑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랑이가 되어 엄마에게 답장을 써 보세요.

엄마에게

랑이가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갈등의 해소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랑이야! 솔이야!”

아빠가 들어서자 둘이 벌떡 일어섰다. 마치 온몸으로 얼룩소를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솔이는 어깨를 한껏 들어 올린 채였다.

“아빠가 미안해. 많이 늦었지? 일이 너무 밀려 있어서…….”

“나아오옹!”

얼룩소가 눈치 없이 큰 소리를 냈다. 아빠 시선이 솔이 옆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얼룩소가 인사하듯 앞으로 나섰다.

“웬 고양이야?”

“아…… 그게……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아빠 눈치를 슬쩍 보며 랑이가 대답했다.

“그럼 주인을 찾아 줘야지 데리고 있으면 어찌자는 거야?” 우리가 키울 수도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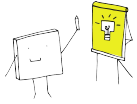
아빠의 단호한 말투에 솔이가 입을 툭 내밀었다.

(나) 아빠는 엄마가 떠난 후, 일부러 일에 더 매달렸다. 머릿속으로는 랑이, 솔이와 시간을 보내야 겠다 생각했지만 내심 부담스러워 외면하기 바빴다. 주방에서 늘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도 싫었고, 식탁에 둘러앉아 텅 빈 엄마 자리를 마주하는 것도 불편했다. 그래서 아빠는 일을 핑계 삼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언젠가 마음이 추슬러지고 나면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다) “여보, 난 이 돌담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각각 모양이 다른 돌들이 모여서 집을 보호하는 담이 되었잖아요. 사소하고 흔해 보이는 돌들이지만 이 돌들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시시하고 평범해서 소중한 줄 모르는 우리 일상처럼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모여 우리 삶을 지켜 주는 돌담이 된 것 같아요.”

1. (가)에서는 누구와 누가 갈등을 하고 있나요? 갈등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2. (가)의 밑줄처럼 아빠가 자주 늦게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서 찾아 써 보세요.
3. (다)는 랑이와 솔이의 엄마가 한 말입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빠에게 랑이의 엄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토론&논술\_ 동물학대, 막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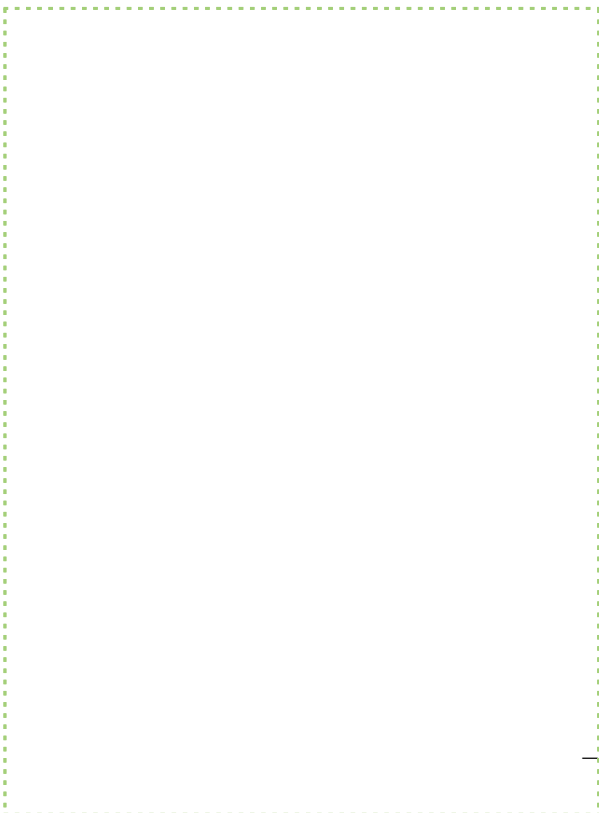
※ 최근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가) 아주머니가 차 안으로 몸을 반쯤 밀어 넣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곤 이내 콜라 캔 하나를 쥐고선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랑이는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어 뱉었다. 아주머니 손이 솟아올랐다. 캔 입구를 보니 아직 마시지 않은 새 캔이었다. 새끼 고양이에게겐 꽤 목직할 게 틀림 없었다.

(나) 동물학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도 줄지 않고,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동물을 계속 사서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치하는 문제도 크다. 동물을 데려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해치는 경우가 많다. 또 길고양이가 찢지 않고 접촉을 하지 못해 세균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길고양이가 먹는 밥에 독을 탄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이 너무 가볍고,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 교육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1. (가)의 아주머니가 콜라 캔을 던졌고, 길고양이가 놀라서 도망갔다면 이 사건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길고양이 학대를 막기 위한 포스터를 참고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 불법 동물학대 행위

길고양이는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길고양이 학대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1. 도구, 악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 3. 도박, 광고, 유희, 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4.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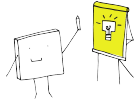
### 범죄 목격시 대처요령

위약, 독극물 등 화학물질은 고양이 뿐 아니라 신축나온 개, 어린 아이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목격시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 1. 112, 관할구청 환경과, 시(도)청 생활경제과 신고
- 2. 증거사진, 음성녹음, 차량번호 기록
- 3. 근처 주민 부르기 (증인 확보)
- 4. 동물보호단체에 연락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학대신고 | 02-313-8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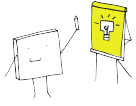
www.fromcare.org  
care@fromcare.org



##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만화로 표현하기

※ 『고양이 엄마』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룩소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랑이 가족의 이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만화	내용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예) 아이들이 고양이에게 안겨 있는데, 이 고양이가 아이들의 엄마인 건가? 예) 고양이를 사람보다 크게 그린 이유는 뭘까? 예) 고양이가 안아 주면 보송보송한 털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p> <p>2. 1) 여일당 마당 2) 아빠, 랑이, 솔이, 얼룩소(고양이) 3) 예시 답안) 몸에 얼룩무늬가 있어서 얼룩소라고 지었을 것 같다.</p>
3쪽	<p>1. 예시 답안) 1. ○월 ○일 / 41쪽 /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딘가에 다른 존재로 살고 있을 거라는 이모의 말이 인상 깊었다. 나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딘가에 계신다고 믿고 싶어졌다.</p> <p>2. 얼룩, 엄마, 용돈, 후원, 사진, 엄마</p>
4쪽	<p>1. ② ③ ① ④ (기본형: 섬뜩하다, 몹서리치다, 난데없다, 양갈지다) 2. ㉠-황소, ㉡-호랑이</p>
5쪽	<p>1. 예시 답안) 죽은 엄마가 어딘가에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는 것. 2. 얼룩소 3. 예시 답안) 충분히 울고 슬퍼한다.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4. 랑이야, 문자 받고 너무 놀랐어. 랑이 네가 얼마나 슬프고 속상할지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친구들에게는 내가 연락할게. 랑아 힘내.</p>
6쪽	<p>1. 여일당, 한결같다는 뜻이다. 2. (가) 새 집에 들어가서 설레고,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늘 식구 모두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나) 엄마가 없는 집은 쓸쓸하고 텅 비어 보였을 것 같다. 그대로인 풍경이 밍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다. 3. 예시 답안) 여유당, 가족들이 모두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었다.</p>
7쪽	<p>1. 매일 밤 엄마가 솔이에게 책을 읽어 주며 하던 행동을 고양이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p> <p>2. 예시 답안) 고양이가 엄마 아빠의 대학시절 사진을 찾아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사진은 엄마 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정말 랑이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다.</p> <p>3. 예시 답안) 엄마에게 엄마, 엄마 딸로 낯아 줘서 고마워. 나도 엄마랑 여전히 함께 있다고 생각해. 언제나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할 거야.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엄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랑이가</p>
8쪽	<p>1. 아빠와 아이들(솔이와 랑이)이 고양이 키우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p> <p>2. 예시답안) 엄마가 없는 자리에 아이들과 셋이 있는 게 불편했다.</p> <p>3. 예시답안) 우리 가족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소중한 일상을 느끼며 살아야 해요. 지금 당신 곁에 랑이와 솔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소중하게 보내 봐요.</p>
9쪽	<p>1. 예시 답안)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물건을 던지는 건 학대가 맞다. 아줌마가 던진 콜라 캔에 맞아 길 고양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또 이렇게 작은 학대가 반복되다보면 점점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2. (생략)</p>
10쪽	<p>예시 답안) 봄에 여일당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랑이네 가족 그림 / 봄이 되어 여일당 마당에 따듯한 햇살이 비추고, 랑이네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한다. 엄마가 좋아하는 파란 의자에 얼룩소가 앉고, 그 주변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는다.</p>